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강민정

조현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교수

본 연구는 애착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경북 소재 대학의 대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아동기외상, 자비불안,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애착외상이 높은 집단(상위 25%)과 낮은 집단(하위 25%)으로 분류하여 주요 변인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애착외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 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외상이 높은 집단은 애착외상이 낮은 집단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받는 자비두려움, 자기자비두려움,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이 각각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외상이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이 완전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외상이 자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정서조절곤란으로 이어져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상담 개입 장면에서 갖는 의의를 논의하고 한계와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애착외상, 대인관계문제, 자비두려움, 정서조절곤란

* 본 논문은 강민정(2020)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현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810-2237, E-mail: itslife@ynu.ac.kr

대인관계문제는 대학생들이 심리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 주로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2017년 청소년상담지원현황에 따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중 대인관계를 주제로 한 상담은 총 33,106건으로 전체 건수의 24%를 차지하였다(여성가족부, 2017).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초기 성인기에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므로 대인관계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 시기이다(Arnett, 2000). 한편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인 부적응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사건들에 따른 외상 경험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박애리, 정익중, 2018; 이미경, 2019). 따라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과 그 메커니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외상이란 폭력이 개인에게 가해져 발생한 심리적 상처가 생리적·심리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Allen, 2005). 외상은 사건 경험 빈도와 대인관계 관여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Allen, 2010). 단 한 번의 충격적 사건(예: 교통사고)으로 인한 외상은 일회성 외상에 속하고,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예: 아동학대)는 반복적 외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생에 있어 인간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예: 자연재해)으로 인한 외상은 비대인 외상에 속하고,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건(예: 폭행)으로 인한 외상은 대인관계적 외상에 해당한다. 특히 대인관계적, 반복적, 장기적 성격을 띠는 외상은 일회성 비대인 외상에 비해 후유증이 높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erman, 1992; Ford & Kidd, 1998). 따라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은 대인관계적이거나 의도성을 지닌 외상성 사건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아동학대와 같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정서 조절과 대인관계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아동기에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대인관계적인 형태의 외상은 복합외상(Herman, 1992), 발달외상(van der Kolk, 2005), 애착외상(Allen, 2005) 등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는데, 이중 Allen은 외상의 발생과 치유에서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애착외상을 정서적으로 긴밀하고 의존적인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외상이라고 정의하였다(Allen, 2010). 즉 외상이 애착관계 맥락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이후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고, 외상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애착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동기 경험은 아동학대이다. 그 이유는 학대가 주로 양육자에 의해 발생하며 가정 내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건수 중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76.9%, 대리양육자가 15.9%, 친인척이 4.5%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아동기 애착외상의 부정적인 여파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애착체계의 손상이다(이수림, 2017; Cook et al., 2005). 선행연구에서 학대와 관련된 외상을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aer & Martinez, 2006; 이지영, 손정락, 2009; 이우

경, 최은실, 2013). 안정적인 애착은 주양육자가 근접성과 민감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안전기지 역할을 할 때 형성되는데(Ainsworth, 1979), 애착대상의 폭력과 방임은 그 자체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기지의 상실을 초래하므로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해볼 수 있다(Allen, 2010). 이와 같이 개인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대상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외상이 발생한 것을 배반외상(Betrayal trauma)이라고도 하는데(Freyd, DePrince, & Gleaves, 2007), 어린 시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성을 측정한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배반외상을 지닌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와 연인 관계에서의 신뢰를 낮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bin & Freyd, 2014). 이는 애착외상이 이후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손상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양육자의 학대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은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또래 및 교사와 애착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며, 또래집단의 거부나 소외를 경험하고,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주요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8; 안은미, 이지연, 정익중, 2013; 황운경, 2016; Kim & Cicchetti, 2010; Paradis & Boucher, 2010). 대인관계문제는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또한 대인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정남운, 1999) 내담자의 대인관계문제가 치료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치료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장현아, 2008;

Dalenberg, 2004; Norcross & Wampold, 2011).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영역에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 대인관계문제에 관여하는 위험요인인 애착외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변인들은 수치심(Kim, Talbot, & Cicchetti, 2009; 이태영, 심혜숙, 2011),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모상미, 정승아, 2017), 정서조절곤란(Poole, Dobson, & Pusch, 2018), 초기부적응도식(Messman-Moore & Coates, 2007)과 감정표현불능(조소영, 김진숙, 2020)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기 외상경험의 대인관계문제를 애착체계 손상의 맥락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애착이 돌봄과 친밀감, 애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아동기 외상경험으로 인해 애착체계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따뜻함과 너그러움 등을 경험하기 어려워하는 것과 더욱 관련성이 크다(Gilbert & Procter, 2006).

Gilbert(2010)는 이와 같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혹은 타인으로부터 친절, 온화함 등을 경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상을 자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ompassion)이라고 지칭하였다. 여기서 자비(慈悲)란 사회적 관계에서의 연결성, 돌봄 행동과 친밀감, 온화함을 비롯한 긍정 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Gilbert(2009)는 자신의 연구에서 compassion을 “다른 생명들과 자신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그것을 덜어주려는 바람과 노력을 지닌 근원적인 친절”로 정의하며, 민감성(Sensitivity), 안녕을 위한 돌봄(Care for wellbeing), 비판단(Non-Judgement), 공감(Empathy), 고통 감내(Distress Tolerance), 연민(Sympathy)의 속성을

지난 개념으로 보고 있다(Gilbert, 2009; Gilbert 2014). 여기서 compassion은 누군가 고통에서 벗어나(karuna; 연민) 행복해지길 바라는(metta; 자애) 따뜻하고 보편적인 마음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조현주, 2014, Cho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lbert(2009)의 compassion 개념을 자비로 번역하였다. 자비는 사회적 장면에서 긍정 정서와 연결성, 안전감을 유발하여 돌봄과 협력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lbert et al., 2012; Hayes, Monestès, & Wilson, 2017). 실제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비훈련을 실시한 연구(박성현, 성승연, 미산, 2016) 결과, 참가자들은 자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타인에 대한 연결감과 수용능력이 상승하는 것을 체험하였으며, 따스하고 긍정적인 감각 및 정서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비의 효과는 화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현주, 김종우, 송승연, 201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자애명상을 통해 자애심이 증가한 참가자들은 정서 조절 능력이 증가하고 화병 증상이 감소하였으며, 긍정적인 정서 및 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유연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 증가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성이 증진되었다. 또한 자비심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과 연민을 증가시킴으로써 이타심과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영, 김완석, 2019; Skwara, King, & Saron, 2017).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자비는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유익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비에 대한 두려움은 자비 활성화를 저해하여 자비심 증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특히 애착외상을 경험한 사람

들이 자비심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Gilbert와 Procter(2006)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비훈련 초기에 '자비로운 생각 및 심상을 떠올리기 어렵다', '자신 또는 타인에게 자비를 보내거나 받는 것이 어렵다', '자비심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등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자비에 접촉하기 어려워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Pauley와 McPherson(2010)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우울 및 불안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비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결과, 참가자들은 자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증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비로워지는 것에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두 연구의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동기에 학대에 노출되었거나 배우자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자비두려움이 애착외상과 관련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자비두려움을 지닌 사람들의 대인관계 행동을 살펴본 연구(Volk, 2018)에 따르면 이들은 대인관계 행동, 즉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반응하는데 있어서 따뜻함과 친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비두려움이 대인관계문제와도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므로 본 연구는 자비두려움이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자비두려움은 정서조절곤란과 관련 있다는 보고가 많다. 타인으로부터의 친절 및 자비는 애착시스템 및 과거 애착 관련 기억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애착 관계에서 학대를 경험한 개인에게는 이러한 기억이 무시, 외로움, 수치심, 취약성과 연합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Gilbert, 2009).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생애 초기 외상적 기억, 온화함과 안전감에 대한 초기 기억과 우울, 불안, 편집성 증상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도(Maros, Duarte, & Pinto-Gouveia, 2017), 높은 수준의 외상 및 사건중심성을 보이는 개인과 초기에 안전하게 돌봄 받으며 양육된 기억이 적은 개인일수록 자비두려움 수준도 높았으며, 자기자비두려움과 타인에게 받는 자비두려움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외상 기억 및 사건중심성, 온화함과 안전감에 대한 초기 기억과 우울, 불안, 편집성 증상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자비가 위협적인 초기 외상 기억을 불러일으켜 그 당시 부정적인 정서를 자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비로 인해 부정적인 과거기억과 정서가 활성화된 개인의 경우, 자비가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비에 대해 저항, 회피, 단절 등 투쟁 및 도피 반응을 보이게 된다(Gilbert, 2009). 또한 Gilbert 등(2012)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비두려움이 정서처리능력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긍정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비두려움은 사회적 장면에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타인으로부터 받는 자비두려움은 정서를 인식하고 묘사하며 처리하는 것의 어려움과 관련된 감정표현불능증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애착외상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자비나 스스로에게 자비를 경험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로써 정서조절의 곤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아동은 성인과 달리 스스로 생리적 각성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숙하므로 진정과

회복을 위해 외부적인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laser, 2000). 이때 안정된 애착관계는 위협에 대한 피난처와 안정 기반이 되어줌으로써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에 기초가 된다(Schore, 2001). Gilbert(2014)는 정서조절을 세 가지 시스템으로 조직화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위협과 자기보호 시스템(The threat and self-protections system)’은 위협을 탐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반응을 유발한다. 여기에는 편도체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이 관여하며 분노, 불안, 혐오 정서와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둘째는 ‘추동-활력 시스템(The drive-excitement system)’으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추구하도록 동기화한다. 여기에는 도파민이 관여하며 필요 자원을 획득하면 흥분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욕구가 좌절되면 위협-보호시스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진정-안정 시스템(The soothing-safeness system)’에는 옥시토신이 관여하고, 평온함, 만족감을 유발함으로써 진정과 휴식, 연결성을 유도한다. 이 시스템들은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반복하며 상호 조절되나, 양육자 즉 애착대상에 의해 학대적인 환경에 노출된 아동은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각성된 상황에서 애착관계를 통해 진정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과각성 또는 환경으로부터 철수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Schore, 2009). 이러한 환경에 반복 노출된 아동은 각성 및 정서 시스템의 발달적 손상으로 인해 향후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며(Lanius, Frewen, Vermetten, & Yehuda, 2010)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역기능적인 분노 및 공격성을 표출하는 등 정서적 문제를 나타냄으로써 대인관계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이충권, 양혜린, 2015; 이지영, 손정락, 2009).

또한 Cloitre, Miranda, Stovall-McClough와 Han(2005)은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주요한 영역(예. 직장, 사회적 활동, 가족 등)의 기능 손상을 예측하는 요소를 탐색했다. 그 결과 PTSD 증상을 통제했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대인관계문제가 개인의 기능 손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후유증으로 남아 일상 기능의 다양한 영역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기에 정서조절 능력과 대인관계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박애리, 정익중(2018)의 연구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이 우울과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았고, 정서조절곤란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대인관계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초기 성인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아동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감정표현 불능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소영, 김진숙, 2020; 최나운, 이영호, 2018).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애착외상을 지닌 사람들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조절곤란이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애착외상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자비두려움,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애착외상이 대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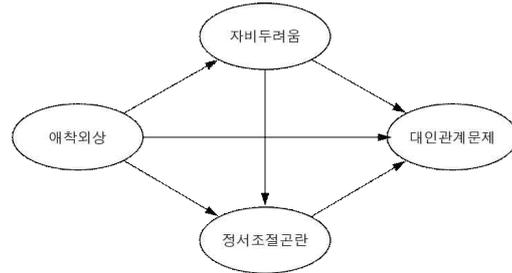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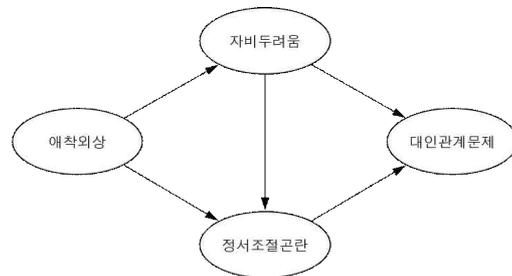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의 대안으로 애착외상이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하는 완전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아동기 애착관계에서 외상경험만으로 대인관계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변인들과 함께 작용하여 관계에서 부적응과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van der Kolk, 2016; Kim & Cicchetti, 2010; 김인혜, 송현주, 2014; 배미향, 조영아, 2014; 조소영, 김진숙, 2020)에 근거한 모형이다. 이를 그림 1,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애착외상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대인관계문제, 자비두려움, 정서조절곤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비두려움은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3. 정서조절곤란은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4.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은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의 4년제 대학생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강의(예. 교내 교양과목)의 담당 교수 승인 하에 연구자가 직접 강의실을 방문하였다. 설문 시작 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 보호,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연구 참여 중단 및 동의 철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수업 시작 전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11부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최종 29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학생 139명, 여학생 157명이며 평균 연령은 22.46세($SD = 2.063$)이다.

측정 도구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K-CTQ)

애착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 (1998)이 개발한 아동기 외상 설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유재학 등(2009)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의 5개 하위척도가 각각 5문항씩 구성되어있으며, 타당도 척도 3문항으로 총 28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1점: 전혀 아니다 ~ 5점: 항상 그랬다) 평정하며, 정서적 방임의 5개 역문항과 신체적 방임의 2개 역문항을 역코딩하였다. 타당도 척도를 제외한 총점이 높을수록 애착외상경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원 도구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79이며,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값이 .6 이상인 경우 내적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Knapp, 1991).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정서학대 .80, 정서방임 .89, 성학대 .79, 신체학대 .82, 신체방임 .51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76, 정서적 학대 .73, 신체적 학대 .78, 성적 학대 .63, 정서적 방임 .90, 신체적 방임 .49로 나타났다.

단, 본 연구는 애착외상의 측정변인에서 성적 학대를 제외하였다.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의 경우 학대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인 반면,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대리양육자나 기타 외부인의 비율이 약 70%로 나타나 애착 관계가 아닌 타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착외상

의 측정에 있어 성적 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요인, 즉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을 애착외상에 대한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한국판 자비불안 척도들(Korean version of the Fear of Compassion Scales, K-FCS)

자비두려움의 측정을 위해 Gilbert 등(2011)이 개발한 세 개의 자비불안 척도를 정주리, 김은영, 최승애, 이유정과 김정기(2015)가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척도 10문항,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불안 척도 13문항, 자기자비 불안 척도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동의한다) 평정하며,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자비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78~.84,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불안 .85~.87 자기자비불안 .86~.92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78,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불안 .91, 자기자비불안 .91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절곤란의 측정을 위해 Gratz와 Roemer (2004)가 개발한 척도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의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5문항이며, 각 문항은 모두 5

점 리커트 척도로(1: 거의 그렇지 않다 ~ 5: 거의 언제나 그렇다) 평정한다.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의 7개 역문항을 역코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전체 척도 .92, 하위척도 .76~.89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90, 하위척도 .79~.89로 나타났다.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KIIP: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SC)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Rosenberg, Baer, Ureño와 Villaseñor(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IIP: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 및 타당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를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이 단축형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친애, 통제-지배 차원의 수직 배열된 두 요인에 8개의 척도가 원형 배열된 형태를 띠고 있다. 냉담은 친밀감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사회적 억제는 사회적 장면에서 불안과 수줍음으로 인한 비사회적 측면을, 자기희생은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 지려고 하는 측면을, 과관여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여하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측면을 측정하며 친애측에 해당된다. 통제지배는 타인을 지나치게 통제 및 조종하려는 경향을, 자기중심성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안녕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측면을, 비주장성은 자신의 욕구 및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과순응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끌려 다니는 측면을 측정하며 통제-지배 축에 해당된다. 총 40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평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원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61~.89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94, 하위 척도 .67~.87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Knapp, 1991).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와 Amos 25를 활용하여 자료 분석 및 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SPSS 25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 α)를 산출한 후, 애착외상 수준에 따른 자비두려움,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Amos 25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인 애착외상, 정서조절곤란, 자비두려움,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문항묶음(item parcel)을 실시하고 평균값을 이용하여 관측변수로 활용하였다. 개념의 구인이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성을 띠는 경우, 이차적 요인(Secundary Factor)을 각 문항 묶음에 고르게 분배시키는 고유분산 분배전략(uniqueness distributed strategy)을 사용하게 되면 모형 적합도는 향상될 수 있으나 모수의 추정이 편향될 수 있고 모형의 정확한 검정을 저해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이차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문항들끼리 묶음을 형성하는 고유분산 고립전략(uniqueness isolated strategy)은 모수를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며 구인의 형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므로 권고되는 방식이다(이지현, 김수영, 2016). 본 연구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의 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Hoe, 2008). 사각회전을 사용하여 고유값이 1보다 큰 성분을 확인했을 때, 모든 변수가 다차원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유분산 고립전략 중 이론 및 내용적 근거에 기반하여 문항묶음하는 내용기반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애착외상은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 타당화 연구(유재학 등, 2009)의 5개 하위요인 중 성적 학대를 제외한 4개 요인에 따라 문항묶음하였다. 자비두려움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세 가지 방향의 하위 자비두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Gilbert, 2009; Gilbert, 2014). 한국판 자비불안 척도들(정주리 등, 2015)은 세 방향의 자비두려움이 각각 하나씩의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므로 3개 척도에 따라 문항묶음하였다. 정서조절곤란은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조용래, 2007)의 6개 하위요인을 따라 문항묶음하였다. 이 중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부족'은 독립변인인 애착외상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였다(Hoyle & Robinson, 2003). 대인관계문제는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홍상환 등, 2002)의 2개 하위요인에 따라 문항묶음하였다. 다음으로 자료가 정규성 가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변량 및 다변량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후 Anderson과 Gerbing(1988)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 먼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

고,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와 합성구성신뢰도 지수(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R)를 통해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그 후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더욱 우수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최종모형에 대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팬텀변수를 생성하여 특정간접효과를 살펴보고,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의 측정변인간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애착외상은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r=.12, p<.05$),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r=.21, p<.01$), 자기자비두려움($r=.21, p<.01$), 정서조절곤란($r=.3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 자기자비두려움은 모든 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타인에게서 받거나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두려움은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보다 정서조절곤란 및 대인관계문제와 더욱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은 나머지 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은 애착외상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간 차이

연구 대상자의 애착 외상 정도를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 번안 및 타당화 연구(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의 외상 수준 분류 기준에 따라 전체 점수 상하위 25%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애착외상이 높은 집단은 80명(27.0%), 낮은 집단은 78명(26.4%)으로 나타났다. 애착외상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자비두려움, 정서조절곤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은 애착 외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t=-1.70, p=.091$)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t=-3.91, p<.001$)과 자기자비두려움($t=-3.20, p<.01$)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은 애착 외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t=-6.27, p<.001$),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을 제외한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정서조절곤란 하위척도 중 애착외상 수준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이다. 애착외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대인관계문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61, p<.001$). 대인관계문제 하위척도 중 애착외상 수준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비주장성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점검

SEM의 최대우도법은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일변량정규성의 경우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8 이상일 때

표 1. 변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치

	A	A-1	A-2	A-3	A-4	B	C	D	E	E-1	E-2	E-3	E-4	E-5	E-6	F	F-1	F-2	F-3	F-4	F-5	F-6	F-7	F-8	
A	-																								
A-1	.87**	-																							
A-2	.77**	.67**	-																						
A-3	.87**	.71**	.46**	-																					
A-4	.62**	.38**	.26**	.53**	-																				
B	.12*	.07	.05	.14*	.08	-																			
C	.21**	.17**	.03	.23**	.24**	.46**	-																		
D	.21**	.15*	.04	.22**	.27**	.43**	.69**	-																	
E	.36**	.31**	.18**	.35**	.29**	.39**	.53**	.50**	-																
E-1	.33**	.28**	.24**	.29**	.24**	.25**	.30**	.26**	.80**	-															
E-2	.06	.02	-.05	.11	.09	.14*	.28**	.21**	.40**	.13*	-														
E-3	.24**	.20**	.09	.21**	.28**	.31**	.45**	.50**	.79**	.57**	.10	-													
E-4	.23**	.19**	.08	.24**	.23**	.35**	.49**	.41**	.69**	.43**	.39**	.45**	-												
E-5	.40**	.36**	.21**	.40**	.27**	.35**	.48**	.45**	.81**	.65**	.13*	.62**	.50**	-											
E-6	.31**	.28**	.21**	.31**	.16**	.31**	.30**	.24**	.69**	.61**	.09	.41**	.39**	.56**	-										
F	.31**	.26**	.14*	.32**	.21**	.35**	.60**	.54**	.59**	.42**	.38**	.42**	.47**	.52**	.35**	-									
F-1	.25**	.20**	.08	.32**	.19**	.30**	.60**	.47**	.40**	.22**	.33**	.27**	.37**	.40**	.19**	.79**	-								
F-2	.27**	.25**	.11*	.30**	.14*	.30**	.58**	.47**	.39**	.24**	.31**	.25**	.35**	.40**	.21**	.83**	.84**	-							
F-3	.22**	.20**	.12*	.19**	.15**	.14*	.28**	.31**	.41**	.29**	.19**	.32**	.32**	.34**	.27**	.65**	.26**	.36**	-						
F-4	.18**	.19**	.14*	.11	.12*	.14*	.25**	.27**	.40**	.42**	.06	.29**	.30**	.30**	.30**	.56**	.17**	.24**	.47**	-					
F-5	.14*	.11	.11*	.09	.16**	.12*	.31**	.31**	.36**	.38**	.05	.35**	.16**	.35**	.25**	.53**	.25**	.31**	.29**	.61**	-				
F-6	.22**	.17**	.08	.24**	.20**	.35**	.52**	.48**	.47**	.29**	.32**	.40**	.36**	.42**	.24**	.71**	.68**	.58**	.19**	.34**	.49**	-			
F-7	.25**	.19**	.07	.32**	.16**	.35**	.47**	.41**	.47**	.27**	.44**	.32**	.43**	.39**	.27**	.84**	.71**	.72**	.52**	.22**	.14*	.51**	-		
F-8	.21**	.18**	.10	.22**	.13*	.28**	.37**	.37**	.50**	.38**	.38**	.32**	.40**	.41**	.30**	.80**	.48**	.57**	.65**	.40**	.28**	.38**	.75**	-	
M	30.50	7.10	7.51	8.95	6.78	31.40	27.76	31.64	77.10	9.73	17.32	12.93	5.45	9.08	8.89	86.28	10.32	10.98	13.07	11.04	8.96	8.92	11.94	11.03	
SD	10.41	2.79	3.44	4.20	2.29	5.79	8.64	9.73	16.48	3.97	4.83	5.36	2.25	3.57	3.07	21.20	3.96	4.28	3.57	3.30	2.65	3.11	4.56	3.63	
왜도	1.90	1.79	1.99	1.23	1.58	-.30	.41	.76	.50	.71	.43	.81	.81	.79	-.06	.07	.47	.50	.04	.33	.53	.61	.23	.25	
첨도	5.08	3.28	4.47	1.43	2.77	.54	-.21	.59	-.36	-.20	.35	-.14	.02	-.13	-.74	-.58	-.27	-.51	-.50	.05	.00	-.05	-.80	-.38	

주. A. 애착이상, A-1. 정서적 학대, A-2. 신체적 학대, A-3. 정서적 방임, A-4. 신체적 방임, A-4. 신체적 방임, B.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 C.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 D. 자기자비두려움, E. 정서조절곤란, E-1. 충동통제곤란, E-2.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E-3.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E-4. 정서적 명료성 부족, E-5.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E-6.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E. 대인관계문제 진해, F-1. 냉담, F-2. 비사회성, F-3. 자기 희생, F-4. 과민어, F-5. 통제지배, F-6. 비주장성, F-7. 비주장성, F-8. 과수응성, G. 대인이상, H. 비대인이상

주. M. 평균, SD. 표준편차, * $p < .05$, ** $p < .01$

표 2. 애착외상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자비두려움, 정서조절곤란의 차이

	애착외상				t-value
	저집단 (N=78)		고집단 (N=80)		
	M	SD	M	SD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	30.63	5.30	32.24	6.52	-1.70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	24.85	8.73	30.64	9.83	-3.91***
자기자비두려움	29.40	9.32	34.54	10.78	-3.20**
정서조절곤란	68.95	13.82	84.63	17.43	-6.27***
충동통제곤란	8.40	3.41	11.71	4.37	-5.32***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15.81	4.57	17.04	4.63	-1.68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11.50	4.63	14.74	6.22	-3.72***
정서적 명료성 부족	4.47	1.88	5.90	2.35	-4.21***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7.47	2.88	10.98	3.78	-6.56***
목표지향적행동 수행 어려움	7.74	3.06	10.25	2.97	-5.23***
대인관계문제	75.00	20.42	93.89	21.88	-5.61***
냉담	8.63	3.68	11.39	3.99	-4.52***
비사회성	9.59	3.99	12.33	4.56	-4.01***
자기희생	11.67	3.54	13.66	3.45	-3.59***
과관여	9.99	3.45	11.93	3.71	-3.39**
통제지배	8.17	2.55	9.80	3.02	-3.67***
자기중심성	7.53	2.49	10.05	3.59	-5.15***
비주장성	9.82	4.33	12.98	4.53	-4.47***
과순응성	9.62	3.37	11.76	3.81	-3.75***
친애 차원	39.87	11.19	49.30	11.43	-5.24***
통제지배 차원	35.13	9.91	44.59	11.28	-5.59***

주. M. 평균, SD. 표준편차, *** $p < .001$, ** $p < .01$

정규성 가정에 위배될 수 있으며 (Kline, 2005), 다변량정규성의 경우 Mardia의 다변량첨도값이 유의수준의 Z분포 임계치인 ± 2.58 를 초과하면 .01수준에서 정규성 가정이 기각된다(Finney & DiStefano, 2006). 본 연구에서 표집된 자료들

의 일변량정규성은 애착외상의 첨도가 8.08으로 정규성 가정에 위배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기준에 부합하였다. 다변량첨도값은 41.07로 정규성가정에 위배되었다. 부트스트래핑은 원 자료를 재표집하여 경험적분포를 형성시키므

로 자료가 정규성을 띄지 않더라도 모수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Shrout & Bolger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Amos에서 비정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인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모형을 추정하였다(서영석, 2010).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적합도 중 $X^2(71)=225.894$ ($p<.001$)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X^2 검증은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모형이 기각되기 쉬우며, 표본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통해 모형을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 중 NFI, TLI, CFI의 경우 값이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이며 0.9 이상이면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RMSEA의 경우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이며 .05 미만일 때 좋은 적합도, .05 이상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08 이상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을 넘으면 나쁜 적합도를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2).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CFI=.92, NFI=.90, TLI=.90, SRMR=.07, RMSEA=.09

(90% CI=.07~.1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표준화계수가 .5 이상, AVE가 .5 이상, CR이 .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AVE가 개념들 간 상관계수 제곱값을 상회하였으므로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개념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애착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욱 우수한 모형인지를 판단하였다. 두 모형은 서로 내포관계(nested relationship)가 있는 형태이므로 비교에 있어 ΔX^2 와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모형적합도와 적합도 지수 비교를 표 4에, 직접경로 모수추정치 비교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모형적합도와 적합도 지수 비교 결과, 완전매개모형은 $X^2(72)=228.643$, CFI=.926, NFI=.897, TLI=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2(df)$	CFI	NFI	TLI	SRMR	RMSEA (90% CI)
225.894(71)	.927	.898	.907	.0661	.086 (.074~.099)

주. CFI = Comparative fit index, NFI = Normed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SRMR =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표 4.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모형적합도 및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X^2(df)$	$\Delta X^2(df)$	CFI	NFI	TLI	SRMR	RMSEA (90% CI)
완전매개모형	228.643(72)		.926	.897	.907	.0674	.086 (.073~.099)
		2.75(1)					
부분매개모형	225.894(71)		.927	.898	.907	.0661	.086 (.074~.099)

주. *** $p < .001$

표 5.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직접경로 모수추정치 비교

경로	완전매개모형			부분매개모형		
	β	S.E.	t	β	S.E.	t
→ 대인관계문제	-			.094	.057	1.70
애착외상 → 자비두려움	.242	.078	3.62***	.230	.076	3.42***
→ 정서조절곤란	.304	.071	5.24***	.304	.068	5.27***
자비두려움 → 정서조절곤란	.576	.070	8.53***	.580	.070	8.59***
→ 대인관계문제	.517	.070	6.71***	.537	.071	7.18***
정서조절곤란 → 대인관계문제	.295	.063	4.06***	.233	.070	2.90**

주. β = 표준화계수, S.E. = 표준오차

*** $p < .001$, ** $p < .01$

.907, RMSEA=.086, SRMR=.0674, 부분매개모형은 $X^2(71)=225.894$, CFI=.927, NFI=.898, TLI=.907, RMSEA=.086, SRMR=.0661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간 적합도 비교를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 X^2(1)=2.75(p > .05)$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직접경로 모수추정치 비교 결과, 완전매개모형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부분매개모형에서는 애착외상에서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더욱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표준화 경로계수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Amos 프로그램은 총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에 대한 결과만 제공해주므로 다중매개모형의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배병렬, 2017). 최종모형에는 애착외상이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대인관계문제로 향하는 간접

Model fit
Chi-square(72)=228.643, NFI=.897, TLI=.907, CFI=.926, RMSEA=.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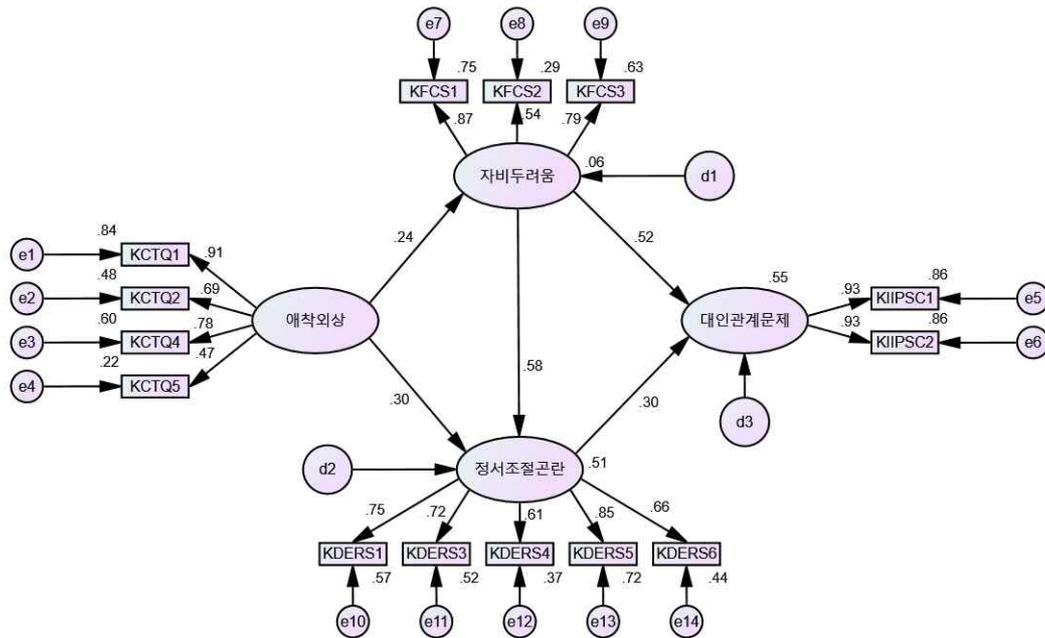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표와 표준화 경로계수

표 6. 최종모형의 특정간접효과 분석결과

경로	B	SE	β	95% CI
애착외상 → 자비두려움 → 대인관계문제	.128**	.063	.125	.039~.283
애착외상 → 정서조절곤란 → 대인관계문제	.092**	.038	.089	.026~.176
애착외상 → 자비두려움 → 정서조절곤란 → 대인관계문제	.042**	.021	.041	.011~.090

주. B = 비표준화계수, CI = Confidence interval

** $p < .01$

경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생성하여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00개의 부트스트랩 샘플을 생성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최종모형의 간접경로에 대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유의도, 95%신뢰구간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특정간접효과 검증 결과, 세 간접경로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 각각은 매개효과를 가지며,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발생한 애착외상이 자비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연결 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외상을 변인으로 한 국내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애착외상의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문제, 자비두려움, 정서조절곤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애착외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애착외상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대인관계문제 전체 평균점수와 하위 유형 평균점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애착외상을 지닌 사람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초기 애착관계에서 발생한 외상이 대인관계라는 중요한 삶의 영역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과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또래 및 커플관계 등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들(Paradis & Boucher, 2010; Salzinger, Feldman, Hammer, & Rosario, 1993; 김은경, 2009)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애착외상 고집단은 저집단에 비해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과 자기 자비두려움, 정서조절곤란 평균점수도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

외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주고받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화함보다 차갑고 비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이 원하는 정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피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았던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조절의 실패(Koole, 2009)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을 나타낸다. 이는 초기 아동기 학대경험과 외상 증상이 자기자비 능력을 감소시키고,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 곤란을 보이며 추후 정신 건강과 연관된다는 선행연구(Inwood & Ferrari, 2018)를 지지한다. 더 나아가 정서조절곤란 하위척도 중 애착외상 수준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정서조절전략 접근제한(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외상을 지닌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정서조절을 위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Hong et al., 2018). 반면 정서조절곤란 하위척도 중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Lack of emotional awareness)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애착외상 경험이 있더라도 정서를 자각하는 능력에는 손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서인식에 있어 편향된 경향을 보이거나 민감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하혜주, 심은정, 2018)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여기에는 역문항 문제도 관련될 수 있겠다. 설문조사에서 역문항은 참가자들의 응답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고길곤, 탁현우, 강세진, 2015) 해당 하위척도는 모두 역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역문항이 포함되

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의 결과는 애착외상을 지닌 대학생이 대인관계문제와 정서문제를 주로 호소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문제들이 상담 개입 장면과 치료적 관계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치료적 관계는 치료의 종류와 상관 없이 치료 성과에 대해 실질적이고 일관된 공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orcross & Wampold, 2011), 견고한 작업 동맹은 치료자와 내담자 간 신뢰 및 수용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발생하므로(Allen, 2010) 상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치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애착 대상으로부터 학대와 거부 경험을 한 개인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저항, 분노, 두려움을 경험하며(Bowlby, 1977) 기본적인 신뢰 능력에 손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작업 동맹을 형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Eltz, Shirk와 Sarlin(1995)은 정신과 입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대 경험, 치료적 동맹, 치료 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치료 성과는 학대 수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나, 긍정적인 치료 동맹을 맺지 못한 경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초기 치료적 동맹을 잘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 형태가 복잡적일수록 더욱 현저했으며,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동맹 형성이 어려웠다. 이러한 연구를 보면 아동학대 관련 애착외상을 지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인관계문제를 통해 치료 동맹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것이 상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PTSD와 치료적 동맹의 관계에 대한 연구(Cloitre, Stovall-McClough, Miranda, & Chemtob, 2004)에 따르면 치료 초기의 치료적 동맹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의 변화를 매개하여 치료 이후 PTSD증상의 호전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외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초기 치료적 동맹이 치료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내담자의 자비두려움 또한 상담 개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본래 자비는 긍정 정서와 안전감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상호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료적 기제를 지닌 것으로 밝혀져 있다(정혜경, 노승혜, 조현주, 2017; Kok et al., 2013; Gilbert et al., 2008). 그러나 자비두려움으로 인해 자비를 유발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거나 자비에 접촉하기 어려워하는 개인의 경우 이와 같은 자비의 치료적 기제가 발견되기 어렵고, 오히려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 및 상담회기에 대한 회피, 단절, 저항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애착외상을 지닌 내담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받는 자비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에 있어 높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애착외상을 지닌 개인과 작업할 때는 치료자가 표현하는 친절함과 자비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상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 및 자기 자신이 보내는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치료적 관계에서 안전감을 구축해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은아, 2018). 상담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애착외상을

지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개입을 할 경우 신중하게 치료적 관계를 다져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애착외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애착외상 경험은 반드시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착외상은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을 이중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즉, 애착외상이 자비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따라서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이 애착외상이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에 기여하는 변인으로써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비두려움과 정서적 단절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배애진, 심혜원, 2018)와 같은 맥락을 지니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저하된 정서 조절과 높은 외현화 증상을 보이고 이후 또래관계 거절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Kim & Cicchetti, 2010)를 지지한다.

상담 및 치료 개입에서 특정 변인이 예측 변인과 준거변인을 완전매개하는 경우, 예측 변인이 아닌 매개변인에 초점을 두고 상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다(서영석, 2010).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이 애착외상을 지니고 있을 경우 치료적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학대적 배경이나 애착외상을 지닌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서는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에 초점을 맞

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개입은 자비중심치료(compassion focused therapy: CFT)이다. CFT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Gilbert(2010)가 개발한 제 3동향 심리치료이다. CBT는 대인관계문제를 악화시키는 개인의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탐색 및 수정하고,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Beck, 2017; Mueser, 2017). 그러나 CBT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담자들은 자신의 신념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정서적인 고통을 느낀다고 보고한다(Rafaeli, Bernstein, & Young, 2014). David와 Szentogotai(2006)는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표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차가운 인지(cold cognitions)뿐만 아니라 개인의 평가와 그에 따른 정서를 수반한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Lazarus와 Smith(1988)는 아는 것(knowing)과 평가하는 것(appraisal)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단순히 아는 것인 차가운 인지(cold cognitions)만으로는 정서가 나타나지 않고,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상황이 손상을 초래하는지 혹은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필요하며, 이와 같이 평가를 수반한 인지를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s)라고 하였다. CFT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개입으로 자비로운 생각, 감정, 행동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서 시스템의 조절과 균형에 초점을 둔다. Hermanto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이 우울에 대한 자기비난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문제에 대한 위협 혹은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비가 개인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운할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애착외상을 지닌 사람의 경우 자비두려움도 높다는 본 연구결과에 따라, 내담자가 느낄 수 있는 자비두려움을 충분히 다루어 해소한 후에 자비중심적 개입을 실시해야 자비의 치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이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과 자기자비두려움에 비해 다른 변인들과 다소 상이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은 나머지 두 자비두려움과 달리 애착외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은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과 자기자비두려움에 비해 애착외상,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와 약한 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Gilbert(2011)의 연구에서 세 가지 자비두려움과 자기비난 및 자기 위안, 애착 유형,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은 다른 두 자비두려움 척도와 다르게 어느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세 가지 자비두려움과 수치심 유발 외상 기억, 사건중심성, 은화함과 안전감에 대한 초기 기억, 우울, 불안 및 편집성 증상간의 관계를 살펴본 Matos, Duarte와 Pinto-Gouveia(2017)의 연구에서도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은 다른 두 자비두려움 척도보다 다른 변인에 대해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과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두려움, 자기자비두려움은 같은 자비에 대한 두려움일지라도

서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타인에게서 받는 두려움과 자기자비두려움의 경험에 있어서는 과거의 학대경험과 애착외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타인을 향한 자비두려움은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비에 대한 개입에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자비두려움 현상의 배경으로 학대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제기되었으나(Gilbert, 2014)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착외상과 자비두려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자비두려움의 세 방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다소 개방된 장소인 강의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문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응답을 확대 혹은 축소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 및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추가하여 자료 수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경북 지역의 특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표본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관련 주제로 연구할 시에는 전국 규모의 대학생 집단으로 반복검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표본으로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애착외상의 선행사건으로 애착대상에 의한 아동기 학대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나, 애착외상이 성인기 애착관계(예. 배우자 학대, 데이트 폭력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Allen, 2010)을 고려했을 때 후속

연구에서 성인기 애착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다면 애착외상의 이해가 더욱 확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애착외상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로 본 연구는 아동기외상질문지로 애착외상을 측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애착외상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애착외상을 측정하는 도구에 있어 더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애착외상을 지닌 대학생이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문제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의 영향에 대한 이해의 틀을 확장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치료적 기능을 하는 자비가 오히려 특정 대상에게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작업 동맹 구축에 있어 대상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특히 애착외상을 지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입할 경우 더욱 섬세하게 안전감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학교장면에서는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적응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대인관계문제가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수진, 2009)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애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향후 연구와 개입, 그리고 학교 장면에서 적응과 문제 예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고길곤, 탁현우, 강세진 (2015).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측정 사

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3), 515-539.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1.

김은경 (2009).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내적통제성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37-56.

김인혜, 송현주 (2014).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대학생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65-78.

모상미, 정승아 (2017).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147-164.

박성현, 성승연, 미산 (2016). 자애명상의 심리적 과정 및 효과에 관한 혼합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395-424

박애리, 정익중 (201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잠재적 유형화: 우울,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대인관계 부적응과 유형화간의 관계. Korean J Child Stud, 39(6), 85-99.

박희영, 김완석 (2019). 이타행동에 대한 마음챙김과 자비심의 차별적 효과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 273-291.

배미향, 조영아 (2014).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49-1870.

배병렬 (2017).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

- 제. 서울: 청람.
- 배애진, 심혜원 (2018).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불안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93-1217.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서울: 경성문화사.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안은미, 이지연, 정의중 (2013). 정서학대가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201-226.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상담지원현황_2017*. <https://www.data.go.kr/data/15048898/fileData.d>에서 검색.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이미경 (2019). 아동기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 대학생의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3), 105-142
- 이수림 (2017). 아동·청소년기 애착외상 경험 이후 외상후성장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43(1), 277-312.
- 이수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29-248.
- 이우경, 최은실 (2013).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제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2), 413-430
- 이은아 (2018). 안전기반치료(Seeking Safety)의 한국 적용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4), 471-502.
- 이지영, 손정락 (2009).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성인애착유형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7(1), 81-89.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충권, 양혜린 (2015). 청소년의 학대, 방임 경험이 정서문제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와 또래관계 간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61-285.
- 이태영, 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 장현아 (2008). 학대아동에 대한 상담 모델의 개관. *청소년상담연구*, 16(2), 1-15
- 정남운 (1999). 대인관계적 심리치료 이론에서 본 내담자 문제와 상담자 전략. 개관. *심리과학*, 8(1), 61-89
- 정의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주리, 김은영, 최승애, 이유정, 김정기 (2015). 한국판 자비불안 척도들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81-903.
- 정혜경, 노승혜, 조현주 (2017). 마음챙김 자비 프로그램(MLCP)이 우울 경향 대학생의 우

- 울, 반추, 마음챙김, 자기자비 및 사회적 유대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2), 271-287.
- 조소영, 김진숙 (202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 적응도식과 감정표현불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3), 323-352.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조현주 (2014). 자비 및 자애명상의 심리치료적 함의. 인지행동치료, 14(1), 123-143.
- 조현주, 김종우, 송승연 (2013). 화병 환자의 자애명상 치료적 경험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25-448.
- 최나운, 이영호 (2018).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2), 137-166
- 하혜주, 심은정 (2018).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얼굴표정 정서인식의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9(2), 97-123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도의 단축형 (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운경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학대경험과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4), 213-234.
- Ainsworth, M. S.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10), 932.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
- Allen, J.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 김정범, 조용래, 최혜경, 최윤경, 권호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Baer, J. C., & Martinez, C. D. (2006). Child maltreatment and insecure attachment: A meta analysis.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4(3), 187-197.
- Beck, J. S. (2017). 인지행동치료 (최영희, 최상유, 이정흠, 김지원 역). 서울: 하나醫學社. (원전은 2011년에 출판)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 & Zule, W.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7(2), 169-190.
- Bernstein, D., & Fink, L. (1998). *Manual for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New York: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o, H., Noh, S., Park, S., Ryu, S., Misan, V., & Lee, J. S. (201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ovingkindness-Compass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4*, 141-144.
- Cloitre, M., Chase Stovall-McClough, K., Miranda, R., & Chemtob, C. M. (2004). Therapeutic alliance, negative mood regulation, and treatment outcome in child abuse-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3), 411.
- Cloitre, M., Miranda, R., Stovall-McClough, K. C., & Han, H. (2005). Beyond PTSD: Emotion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s predictors of functional impairment in survivors of childhood abuse. *Behavior Therapy, 32*(2), 119-124.
- Cook, A., Spinazzola, J., Ford, J., Lanktree, C., Blaustein, M., Cloitre, M., DeRosa, R., Hubbard, R., Kagan, R., Liataud, J., Mallah, K., Olafson, E., & Van der Kolk, B. (2005).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5), 390-398.
- Dalenberg, C. J. (2004). Maintaining the safe and effectiv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distrust and anger: Countertransference and complex trauma.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4), 438.
- David, D., & Szentagotai, A. (2006). Cognitions in cognitive-behavioral psychotherapies; toward an integrativ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3), 284-298.
- Eltz, M. J., Shirk, S. R., & Sarlin, N. (1995). Alliance formation and treatment outcome among maltreat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19*(4), 419-431.
- Finney, S. J., & DiStefano, C. (2006). Non-normal and categorical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Hancock, G. R. & Mueller, R. O.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course*(pp. 269-314). North Carolina: Information Age Publishing
- Ford, J. D., & Kidd, P. (1998). Early childhood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as predictors of treatment outcome with chronic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1*(4), 743-761.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 Freyd, J. J., DePrince, A. P., & Gleaves, D. H. (2007). The state of betrayal trauma theory: Reply to McNally-Conceptual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Memory, 15*(3), 295-311.
- Gilbert, P. (2009). Evolved minds and compassion-focused imagery in depression. In Stopa, L. (Ed.), *Imagery and the Threatened Self* (pp. 216-241). London: Routledge.
- Gilbert, P. (2010). *Compassion focused therapy: Distinctive features*. London: Routledge.
- Gilbert, P. (2014). *자비중심치료 (조현주, 박성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Gilbert, P., & Procter, S. (2006). *Compassionate*

- mind training for people with high shame and self criticism: Overview and pilot study of a group therapy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13(6), 353-379.
- Gilbert, P., McEwan, K., Gibbons, L., Chotai, S., Duarte, J., & Matos, M. (2012). Fears of compassion and happiness in relation to alexithymia, mindfulness, and self criticism.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5(4), 374-390.
- Gilbert, P., McEwan, K., Matos, M., & Ravis, A. (2011). Fears of compassion: Development of three self report measure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4(3), 239-255.
- Gilbert, P., McEwan, K., Mitra, R., Franks, L., Richter, A., & Rockliff, H. (2008). Feeling safe and content: A specific affect regulation system? Relationship to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self-criticism.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3), 182-191.
- Glaser, D. (2000).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brain-a review.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1), 97-116.
- Gobin, R. L., & Freyd, J. J. (2014). The impact of betrayal trauma on the tendency to trus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5), 505-511.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Hayes, S. C., Monestès, J. L., & Wilson, D. S. (2017). Evolutionary principles for applied psychology. In Hayes, S. C., & Hofmann, S. G. (Ed.), *Process-based CBT: The science and core clinical competencies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p. 155-171).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3), 377-391.
- Hermanto, N., Zuroff, D. C., Kopala-Sibley, D. C., Kelly, A. C., Matos, M., Gilbert, P., & Koestner, R. (2016). Ability to receive compassion from others buffers the depressogenic effect of self-criticism: A cross-cultural multi-study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8, 324-332.
- Hoe, S. L. (2008). Issues and procedures in adop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 *Journal of Quantitative Methods*, 3(1), 76-83.
- Hong, F., Tarullo, A. R., Mercurio, A. E., Liu, S., Cai, Q., & Malley-Morrison, K. (2018). Childhood maltreatment and perceived stress in young adults: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Child abuse & neglect*, 86, 136-146.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6(6), 885-892.
- Hoyle, R. H., & Robinson, J. I. (2003).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Measurement, design, and analysis issues. In C. Sansone, C. Morf, & A. T. Panter (Ed.), *Handbook of Methods in Social Psychology* (pp. 213-233). CA: Sage.
- Inwood, E., & Ferrari, M. (2018). Mechanisms of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mpassion, emotion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 Being*, 10(2), 215-235.
- Kim, J., & Cicchetti, D. (2010).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6), 706-716.
- Kim, J., Talbot, N. L., & Cicchetti, D. (2009). Childhood abuse and curren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shame. *Child abuse & neglect*, 33(6), 362-371.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Knapp, T. R. (1991). Focus on psychometrics. Coefficient alpha: Conceptualizations and anomali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4(6), 457-460.
- Kok, B. E., Coffey, K. A., Cohn, M. A., Catalino, L. I., Vacharkulksemsuk, T., Algoe, S. B., Brantley, M., Fredrickson, B. L. (2013). How positive emotions build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Science*, 24(7), 1123-1132.
- Koole, S. L. (2009). The psychology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Cognition and emotion*, 23(1), 4-41.
- Lanius, R., Frewen, P., Vermetten, E., & Yehuda, R. (2010). Fear conditioning and early life vulnerabilities: two distinct pathways of emotional dysregulation and brain dysfunction in PTSD.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1), 5467.
- Lazarus, R. S., & Smith, C. A. (1988). Knowledge and appraisal in the cognition-emotion relationship. *Cognition & Emotion*, 2(4), 281-300.
- Matos, M., Duarte, J., & Pinto-Gouveia, J. (2017). The origins of fears of compassion: shame and lack of safeness memories, fears of compassion and psychopathology. *The Journal of psychology*, 151(8), 804-819.
- Messman-Moore, T. L., & Coates, A. A.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7(2), 75-92.
- Mueser, K. T., (2017). Interpersonal skills. In Hayes, S. C., & Hofmann, S. G. (Eds.), *Process-based CBT: The Science and Core Clinical Competencies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p. 155-171).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 Norcross, J. C., & Wampold, B. E. (2011). Evidence-based therapy relationships: Research conclusions and clinical practices. *Psychotherapy*, 48(1), 98-102.
- Paradis, A., & Boucher, S. (2010). Child maltreatment history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adult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2), 138-158.
- Pauley, G., & McPherson, S. (2010).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passion and self compassion for individuals with depression or anxiet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3(2), 129-143.
- Poole, J. C., Dobson, K. S., & Pusch, D. (2018). D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redict adult interpersonal difficulties?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Child abuse & neglect*, 80, 123-133.
- Rafaeli, E., Bernstein, D. P., & Young, J. E. (2014). 심리도식치료 (이은희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Salzinger, S., Feldman, R. S., Hammer, M., & Rosario, M. (1993).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4(1), 169-187.
- Schore, A. N. (2001). Effects of a 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 on right brain development, affect regulation, and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Official Publication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22(12), 7-66.
- Schore, A. N. (2009). Attachment trauma and the developing right brain: Origins of pathological dissociation. In Dell, P. F., O'Neil, J. A. (Eds.), *Dissociation and the Dissociative Disorders: DSM-V and Beyond*, (pp. 107-141). New York: Routledge.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kwara, A. C., King, B. G., & Saron, C. D. (2017). Studies of training compassion: What have we learned; what remains unknown?. In Seppälä, E. M., Simon-Thomas, E., Brown, S. L., Worline, M. C., Cameron, C. D., & Doty, J. R.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ssion Science*, (pp. 219-23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er Kolk, B. A. (2005).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Toward a rational diagnosis for children with complex trauma histories. *Psychiatric Annals*, 35(5), 401.
- Van der Kolk, B. (2016).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제효영 역), 서울: 을유문화사. (원전은 2014년에 출판)
- Volk, K. (2018). *Fear of compassion: Links to interpersonal and intrapsychic behavior, personality variables, and mental health outcomes* (Publication No. 10841280).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 원 고 접 수 일 : 2021. 01.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3. 05.
최종게재결정일 : 2021. 04. 04.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Fear of Compassion and the Difficulties of Emotion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rauma and Interpersonal Problems

Minjeong Kang

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Doctor's Student

Hyunju Cho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fear of compassion and the difficulties of emotion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rauma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96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assessed their attachment trauma, fear of compassion,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ose with high attachment trauma had significantly more interpersonal problems, fear of compassion from others, fear of self-compassion, and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than those with low attachment trauma. Further, fear of compassion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were shown to fully mediate and fully dual-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rauma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ttachment trauma affects the degree to which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at fear of compassion and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may be the mechanism underlying that relationship. This paper discusses several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area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Attachment trauma, Interpersonal problems, Fear of compassion,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